

01 교회소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감동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02 생명의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2)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 영적인 담대함 속에 어떤 위험에도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03 기획특집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

04 간증

믿음으로 행하니...

믿음의 행함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굵은 척추가 퍼지며 대상포진을 치료받는 등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1006호 2023년 11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작은 것도 소중히**

선물을 주면 매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매 순간 감동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1)**




**추수감사주일 및 성찬식**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11월 19일 주일, GCN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심고 행한 것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출 23:16)이다.

대예배에는 ‘준비된 그릇’(눅 10:2)이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 설교가 있고, 저녁예배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마 25:19~21, 26:26~28)이라는 말씀을 전한 후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식을 집례한다.

한편, 학습식은 두 주 전, 세례식은 한 주 전, 주일 대예배 후 3층 성전에서 있었다.



**포토뉴스**

**장정연 목사,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도시 교회 집회 및 주의 종 콘퍼런스 인도**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콜롬비아 북부 항구 도시 까르따헤나에서 교회 집회 및 주의 종 콘퍼런스가 있었다. 감사 장정연 목사(예수교연합성결회 라틴아메리카 총회장)는 라스 팰메라스 교회, 만시온 데 그리스도 교회(사진 2), 아모르 프라페르날 교회(사진 3)에서 각각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등의 말씀을 전한 후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해 주므로 성도들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한편, 주의 종 콘퍼런스는 ‘성령 시대의 목회자’라는 주제로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와 방향성을 논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사진 1).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2)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브리서 11:33~38)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에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요 16:33).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죄를 짓게 하여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믿음을 간직하되 참믿음을 소유해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요.

지난 호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불의 응답을 끌어내린 엘리야, 현실을 바라보지 않은 엘리사,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터, 죽음 앞에서도 타협지 않은 다니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용사 기드온과 소년 다윗, 유다 왕 여호사밧 등 구약시대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긴 신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요한복음 6장 53-55절에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요 1:14).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

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얻고 그만큼 믿음도 성장합니다(시 1:1~3).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진리가 채워지지요. 미움이 빠지고 사랑이, 교만이 빠지고 겸손이, 열기가 빠지고 온유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요일 1:7),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약 2:22). 말씀대로 행함을 내보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증거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사람, 곧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마음이 진리로 가득한 사람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다 해도 이후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은 그 고난과 죽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자신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의 공포를 내쫓기에 담대히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

### 1)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박해와 더불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그는 헤롯 왕 때에 칼로 죽임을 당했지요.

수제자 베드로는 권세자들의 위협과 옥에 갇히는 시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때가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타 죽지 않았지요. 그러자 밧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시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수명이 다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 2)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참수형 당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받기를 자청했지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고후 11:23~27).

군중 앞에서 옷이 벗긴 채 매를 맞은 뒤 깊은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고(행 16:22~25), 어떤 때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가 죽은 줄 안 사람들에게 의해 성 밖에 내다 버려진 적도 있었지요(행 14:19).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롬 8:35~37).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큰 악을 행했던 자신을 만나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주님의 사랑에 빛진 자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었고,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 칼에 목 베임을 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p><b>만민뉴스</b>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b>이재록</b> 편집인 <b>빈금선</b> 인쇄인 <b>이호영</b></p> <p>홈페이지 <a href="http://www.manminnews.com">www.manminnews.com</a></p> <p><b>만민중앙교회</b> 대표전화 02) 818-7000</p>	<p><b>만민중앙교회</b>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다니엘 철야 기도회</td> <td>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td> </tr> <tr> <td>새벽예배</td> <td>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td> </tr> </table> <p>※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3) 원형 경기장에서 극심한 박해를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

주 후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방화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네로는 흥흥한 민심을 억누르기 위해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아무 잘못 없이 체포되었고, 급기야 네로는 그들을 죽이기 전에 로마 시민을 위한 오락에 이용하지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는 장면을 볼거리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순교자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이는 함께 손을 마주 잡고 하늘을 우러러 힘차게 찬양하는 중에 맹수의 공격을 받아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4)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주 후 2세기에는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져서 기독교인들의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였고, 거리에서 폭도들에 의해 돌에 맞는 등 위험을 동반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해가 극심했지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물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빵이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는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것을 강요받았지만,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집정관이 한번만 굴복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 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해 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소?”라고 답변했지요. 결국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5) 카타콤에서의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장기화하자 성도들이 피난처를 찾아 떠난 곳이 바로 지하 공동묘지로 알려진 카타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위험 속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지내야 했지요. 마치

죽음 속에서 산다고 할 만큼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매일 기도와 찬미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먼저 간 형제들이 천국에서 누릴 즐거움을 얘기하며 소망 가운데 생활하였습니다.

더욱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박해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민권이 박탈되고 교회가 불태워졌으며, 많은 성직자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체포되었지요. 투옥된 지도자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강요당했는데, 이에 불복할 때는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처럼 심한 박해 속에 죽어간 순교자들에게는 대부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름다운 단 장식에 쓰인 최상의 열매와 채소, 곡식들의 다양함을 보며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영육 간에 맺은 축복의 열매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신 은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자유 의지를 주면 배신할 것도 아셨지요. 범죄한 아담의 자손 중에 수많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믿으셨기에 인간 경작을 포기할 수 없으셨지요. 오늘날까지 이 땅에 무수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각각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각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에 민망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런 좋은 면이 있으니 반드시 온전케 될 수 있다.'며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2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앞이 캄캄하고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되는 것도, 영을 사모하는 마음도,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또한 변화되곤 사모할 때 자기 모습을 발견케 하시며 말씀대로 살곤 할 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3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해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니 그분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 이시지만 사람 편에서 죄의 담으로 인해 그 사랑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회개할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 중심에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끈고함이 사라지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막연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싶어서,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어서, 내가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구체적인 천국 소망도 품게 됩니다.



## “골다공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굽은 척추가 펴졌어요!”

원창순 권사 (68세, 중국 2교구)

2023년 6월 16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에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그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척추 골절이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온 것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풍이 올 수 있으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한 달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이후 3개월간 휴식 하며 물리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 있고, 저 또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시력이 회복돼 안경을 벗고 허리디스크도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만민 하계수련회와 작정 다니엘철야가 있으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그날부터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련회를 앞두고 진행된 21일간 작정 다니엘철야 때는 간절히 기도하던 중,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이 정체되었던 것에 대해 통회자복 하였습니다.

7월 16일에는 우리 교구 성령충만기도회 때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기도 받기 전만 해도 그토록 심했던 허리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을 치료받자 저는 수련회 때는 굽은 척추를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힘든 세탁 일을 해오면서 점점 척추가 굽어졌기 때문입니다. 하계수련회까지 남은 기간 더욱더 마음 다해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7월 31일 수련회 첫날, 교회 버스를 타고 성도

님들과 함께 충만하게 찬양하며 수련회장으로 가고 있는데 제 등과 허리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치료받겠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교육 및 은사 집회’ 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고, 전체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단 앞으로 나아가 원장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온몸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서 누군가 제 척추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더니 이내 허리가 시원해지면서 쪽쪽 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마음의 성결을 더욱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해졌지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치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습니다!”

백순옥 집사 (62세, 1대대 4교구)

저는 어릴 때부터 왼쪽 귀 안쪽이 아프고 가려워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귀가 아파서 잠을 못 자니 할머니께서는 제 왼쪽 귀에 손을 대주곤 하셨지요. 잘 들리지도 않아서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병원 치료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참으며 살아왔지요.

그러던 1994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민의 양 때가 되었습니다. 매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고 들으니 ‘나도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 당회장님께 기도 받았는데 놀랍게도 왼쪽 귀의 아픈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30여 년간 불편했던 왼쪽 귀가 순순간에 치료되니 너

나 행복했고, 이 일은 제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신기한 일은 얼마 뒤 왼쪽 귀 안쪽이 매우 가려워서 손가락으로 긁숙을 후냈는데, 녹두 알처럼 생긴 딱딱한 이물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오던 저는 또 한 번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통증이라 확인을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부 가운데만 조금 아팠는데 점점 아픈 부위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그 부위에 물렁물렁한 혹 같은 것이 생겼고, 무언가로 콧속 찌시는 듯한 통증

이 느껴졌지요. 통증이 발생하면 너무 아프고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한참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킴 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큰 소리로 말다툼한 일이 떠올랐지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쑤시던 통증이 곧바로 물러갔고 미세한 통증만 조금 남았지요. 이틀 뒤에는 그 미세한 통증마저 싹 사라졌으며 혹도 없어져 대상포진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린길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010-5434-392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엘림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결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릉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